

좁아지는 은행 취업문... 희망퇴직 늘고 인력충원 줄인다

우리銀·하나銀 하반기 공채 안해
은행권 올 희망퇴직자 약 4000명
금융서비스 디지털화 가장 큰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은행권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 신입 공채 채용은 줄어들고 희망퇴직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3개 은행이 하반기 공채에 나섰다. 규모가 과거 대비 대폭 줄어 대규모 공채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올해 하반기 NH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150명)와 비교해 채용 규모를 20명 줄였고 경력공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

해 하반기(200명)보다 70명 늘렸지만 경력직까지 포함해 선발한다. 신입 공채만 봤을 때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신한은행만이 250명 규모의 대규모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공개채용이 아닌 수시채용을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을 진행했지만 올 상반기 지역인재 신입 행원 공채, 수시채용, 하계인턴 채용만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신입행원(일반직) 수시 채용 외에 별도 채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올해 공채 대신 3~4차례에 나눠 수시 채용을 진행했다.

하반기 채용은 9월에서 10월 중 진행되는 만큼 아직 공채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에 함께 묶어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이 공채에 소극적인 이유는 디지털 전환으로 일반 행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공채가 줄고 있지만 희망퇴직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연말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 56세 해당 직원(1965년생)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만 56세 직원에게는 28개월치 임금(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이 28을 곱한 금액)과 전직지원금 4000만원,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은 이보다 적은 20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 1월 30일자로 무려 800명이 희망퇴직했다. 2020년(462명), 2019년(613명), 2018년(407명)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신한은행은 올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해 각 220명, 130

명 총 350명이 회사를 떠났고, 우리은행도 지난 1월 말 468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짐을 싸다.

또한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에선 500여명이 떠났고, 한국씨티은행은 2300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에 서명을 한 상태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도 인력 감축에 나서는 데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고객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금융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용문제로 은행 점포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가속화로 인해 은행 지점이 줄어들어 은행원들이 있을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은행 공채가 줄어드는 것과 희망퇴직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결국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조용병, 'UNEP FI' 회의 참석... 亞 멤버 유일

(신한금융 회장)

리더십 위원회 초대 회의 참석
"친환경 기술 투자 적극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조용병 회장이 지난 24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공식 파트너십 기구인 '리더십 위원회(Leadership Council)' 초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더십 위원회는 제26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이후 글로벌 금융이 환경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UNEP FI의 최고 권위 위원회로 지난 18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멤버로 선정됐다.

제1차 위원회는 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의 환영사와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금융업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24일 UNEP FI(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공식 파트너십 기구인 '리더십 위원회' 초대 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십 위원회(Leadership Council)' 초대 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와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에서 추진 중인 ESG 공시 강화에 대한 준비와 탄소중립금융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앞으로 U

NEP FI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신한탄소중립을 향한 핵심 키워드인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으로 삼고, 국내외 탄소 고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NH농협銀, 소비자원과 금융 피해 예방

피해사례·예방 가이드 동영상 제작

NH농협은행과 한국소비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NH농협은행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양 기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 2가지(스미싱·보이스피싱 및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선정해 주요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로 구성했다. 시청자의 흥미를 높이고 전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혼합 형태로 제작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오른쪽)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 동영상 제작 간담회 실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양 기관은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전 지점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을 송출한다.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도 등재할 계획이다.

/백지연 기자

우리금융, '2021 핀테크데모데이' 개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 4층 강당에서 진행된 '제26차 핀테크데모데이, 우리금융그룹 x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하는 핀테크데모데이는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행사다. 2015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부, 기관 및 기업 등에 핀테크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연계 등 금융산업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데모데이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nn

oLab)'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예선을 거쳐 총 8개 디노랩 기업이 본선에 올랐고 이번 데모데이에서 IR피칭을 통해 최종 4개사가 우수발표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핀테크혁신펀드 투자 운용사로부터 IR(사업설명회)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며 발표기업에게는 모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디노랩이 보유한 센터 입주 기회도 제공된다.

본선 데모데이에서 발표한 디노랩 기업은 다테크니고, 컨슈머인텔리전스, 써로마인드, 딥센트, 마이크로프로텍트, 팻핀스, VS커뮤니티, 금방 등 총 8개사다.

/이승용 기자

우리종합금융

'하이정기예금' 출시

우리종합금융은 비대면 개인 고객 대상 '하이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이정기예금'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기 180일의 특관성 정기예금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2.2%이며 1억원 일시 가입 시 우대금리 0.1%를 추가해 최고 2.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종합금융은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하이정기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승용 기자



한화손해보험 2021년 일반직 신입사원들이 '안전벽화 그리기 나눔활동'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보, 신입사원과 안전 벽화 봉사

도심 환경 개선 도와

한화손해보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손보는 지난 24일 2021년 일반직 신입사원 20명과 서울 마포구 새창로 인근 굴다리 담벼락에 안전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작년 연말 마포구청의 요청사항에 맞춰 지하보도 연결 통로 벽화 나눔을 진행했다. 이어 굴다리 안쪽도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번 벽화의 디자인도 '도심 속에 공존하는 자연과 사람'이란 콘셉트를 반영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